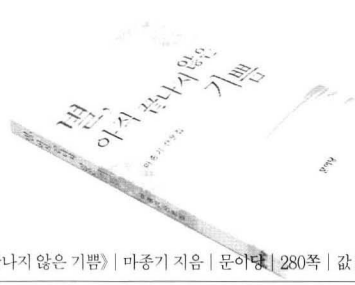


## 한국의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별,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 | 마종기 지음 | 문이당 | 280쪽 | 값 8,000원



마종기 시인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한평생 외국에서의 의사생활을 끝내고 한국의 시인으로 활동무대를 바꾸기 위해' 작년 6월 은퇴를 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안 된 지난 5월 마 시인은 그의 첫 산문집 《별,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문이당)을 가지고 서울을 찾았다.

이 책에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장장 30년 동안 재미교포 사회의 신문·잡지에 발표한 산문들이 모여 있다. 시인의 삶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의사로서의 체험과 지나긴 미국 이민 생활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 문청시절을 비롯한 개인사까지, 마종기의 시 세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귀중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30년간 모은 잡동사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안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시인이 쓴 산문집이라기보다 모국어어를 사랑하면서 살아온 한 한국인의

고국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그동안 '괜찮은 의사'와 '좋은 시인'이 되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산문을 멀리 해왔던 그이기에 이번 산문집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남다르다. 특히 마 시인 개인적으로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기도 했다.

"일부러 산문을 멀리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아동문학가 마해송)도 글을 쓰신 분이셨고, 내 시에 산문적인 요소가 장점이라는 주위의 평가도 있어서 내심 산문에 더 재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과 함께 편집과정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숨겨둔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오래 외국에 살았구나' 하는 사실이 그렇게 절실할 수 없었습니다."

산문집은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었던 시집 발간 때와는 다른 작업이었다. 내용과 문체는 작가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어휘선택과 같이 사소한 부분에서는 작가 자신보다는 독자를 먼저 고려해야 했다. 편집을 맡은 젊은 친구들이 '선생님 요즘엔 이런 단어 안 써요' 하며 고치는데 처음 며칠은 여간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었다.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서두른 은퇴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늦었으면 그만큼 더 힘이 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별, 아직 끝나지 않은 기쁨》은 '오

랫 동안 별을 싫어 했다'로 시작하는 그의 시 제목이기도 하다. '보였다 안 보였다'하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부터 견디기 위해 그는 시를 썼을 것이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의 자극적인 시를 보며 한국시의 절망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감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쉽고 아름다운 시는 시인과 시와 독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학이 아니라 그 너머입니다."

마 시인은 이번 산문집을 기점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본격적인 문학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의학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됐다. 앞으로 '마음껏' 풀어놓을 그의 시와 산문, 그리고 문학 이야기가 '시인 마종기'를 그리 위해 온 문단과 독자, 학생들을 꽤 들뜨게 할 것 같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